

잘 긁으면 돈이 보인다

사람들은 누구나 대박의 꿈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물론 어떤 이는 대박이 아니라 소박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누구나 꿈을 갖고 살며, 실제로 용꿈이나 돼지꿈을 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덕을 보고 있는 분야가 바로 복권분야가 아닌가싶다. 예로부터 좋은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쉽게 복권을 사게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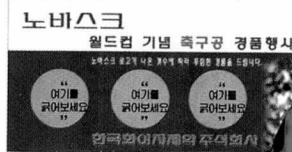
복권이란 공공기관 등에서 특정의 사업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당첨금이 따르는 표로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번호를 기입하였거나 어떤 표시를 해 놓은 표를 팔아서 추첨과정을 통해서 당첨된 표에 대해서는 표의 값보다 훨씬 많은 상금을 주는 제비를 말한다.

복권의 효시는 고대 로마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로마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재위 BC 27~AD 14)가 로마의 복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회에서 복권을 팔고 복금으로 노예·집·배 등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고, 폭군 네로가 로마를 건설할 때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였다는 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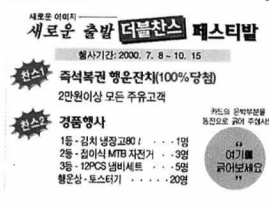
한국에서 복권의 기원은 조선 후기 작백계(契)나 산간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근대적 의미의 복권은 1945년 7월 일본이 통치권이 미치는 전 지역에서 태평양전쟁의 군수 산업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승찰(勝札)이라는 이름으로 한 장에 10원, 1등 10만 원, 총 발행액 2억 원 어치의 복권을 팔았다.



▶ 특정사업을 위해 판매되고 있는 각종 즉석복권



◆ 성일토탈프린팅에서 인쇄한 각종 즉석 경품권



그러나 이것이 일제강점기의 것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제 16회 런던올림픽 참가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1947년 12월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올림픽후원권(1백원짜리 140만장)을 발행한 것이 공식복권의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1949년 재해대책자금 조성을 위한 후생복권이 발행되었으며, 애국복권과 특수목적의 산업박람회복권, 무역박람회복권 등이 종종 발행되었으나 모두 단명에 그쳤고, 1969년 9월 한국주택은행이 주택복권을 발행하면서 정기복권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990년 9월부터는 대전국제무역박람회가 박람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엑스포복권을 발행하였고,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체육복권이 나오면서부터 즉석식 복권들이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추첨식 복권보다 즉석식 복권이나 경품권행사 복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의 성격에 알맞은 형태의 복권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석복권은 흔히 스크래치복권이라고도 하며, 이는 영어의 scratch(긁다)에서 나온 말로서 복권의 당첨여부를 보려면 긁어서 내용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다.

스크래치복권의 인쇄는 흔히 알고 있는 오프셋인쇄에 당첨여부를 알 수 있는 내용 위에 UV코팅을 한 후 그 위에 실크스크린인쇄를 하는 방식이다. 내용을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고 그 부분을 긁으면 내용을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실크스크린인쇄를 할 때 사용하는 잉크는 이 용도에 맞는 스크래칭잉크가 따로 있다.

〈제작과정〉

기획 · 편집디자인 → 출력 · 소부(판제작) → 오프셋인쇄 → UV코팅 → 실크스크린인쇄